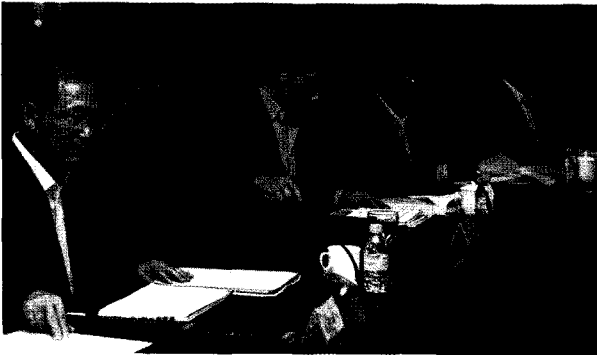




■ SK에너지, 독자경영체계 본격 시동



SK에너지는 지난 11월30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석유사업과 화학사업의 분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석유사업과 화학사업은 물적분할을 통해 SK에너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자회사로 설립된다. 존속회사인 SK에너지는 자원개발과 기술원 중심으로 기술 중심의 신사업 창출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된다.

신설회사가 되는 석유사업은 기존의 정제, 마케팅, 트레이딩 부문을 강화하여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신규 시장확보 및 사업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화학사업 또한 기술기반의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차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SK에너지 구자영 사장은 이번 분할 결정에 대하여 "2008년 CIC(Company in company: 회사 내 회사)제도를 통해 충분히 준비와 검증을 거쳤으며 작년 SK루브리컨츠의 분할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며, "분할 이후 각 회사의 전문성 강화와 사업유연성 등을 통해 본원적인 경쟁력을 제고하여 빠른 시기에 가시화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베트남 15-1/05 광구에서 2차 원유 발견

SK에너지는 베트남 15-1/05광구 2차탐사정 시추 결과 원유층을 발견했다고 지난 11월 4일 발표했다.

15-1/05 광구 참여사들은 올해 3월부터 1차 탐사정 시추지역에서 동북쪽으로 2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Lac Da Vang(황색 낙타) 구조에서 2차 탐사정 시추를 진행해 왔으며, 기반암 저류층으로부터 양질의 원유(API 43°)를 1일 기

준 약 3,500배럴 시험 산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광구 참여사들은 추가 탐사 및 평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5-1/05 광구는 베트남 호치민시 동남쪽 180km 지점에 위치한 해상광구로 SK에너지는 2007년 2월부터 이 광구에 참여해 탐사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0월에도 광구 남쪽지역의 Lac Da Nau(갈색 낙타) 구조에서 1차 탐사정 시추를 진행한 결과 1일 기준 약 4,300배럴의 시험 산출에 성공하며 광구 참여 2년여 만에 원유 부존을 확인한 바 있다.

■ "첨단 정보전자소재 新강자"로 부상



SK에너지가 미래 전기자동차, IT기기 등에 사용되는 첨단 정보전자소재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SK에너지는 지난 10월19일 충북 증평 산업단지에서 최태원 SK 회장, 구자영 SK에너지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증평공장 준공식을 갖고, 전기자동차, 휴대폰, 노트북PC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LiBS (Lithium-ion Battery Separator, 리튬이온전지 분리막)의 4, 5호기 상업 생산라인이 본격 양산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용 리튬 이온전지의 성장에 대비해 지난 2009년 초 충북 증평 산업단지 내에 22만㎡ 부지를 확보했으며,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LiBS 생산라인 증설에 나서, 올해 7월 4, 5호라인의 기계적 준공을 완료하고, 시험생산을 진행해 왔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태원 회장은 "LiBS는 SK가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한 SK의 대표 기술"이라며, "TAC, FCCL 등 정보전자소재사업으로까지 SK의 기술영토를 넓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 ■ 중국 국영기업과 석탄화학사업 MOU체결



SK에너지는 지난 11월18일 산둥성 조장시 조광그룹 본사에서 SK에너지 김동섭 기술원장과 조광그룹 강위(지양웨이) 회장 등 양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 석탄가스화 기술을 활용한 석탄화학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석탄화학사업은 기존의 석유에서 에너지, 화학제품을 만드는 석유화학과 달리 비교적 저렴하고 풍부한 석탄을 원료로 해서 SK에너지가 국책과제로 개발 중인 청정 석탄가스화 기술을 결합해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MOU 체결로 양사는 조광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석탄(갈탄) 자원과 SK에너지가 개발 중인 청정 석탄가스화 기술 및 SK에너지의 석유화학 촉매공정기술을 결합시켜, 석탄화학사업 모델의 경제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MOU를 계기로 중국 석탄자원과 석유화학산업간 융합에 의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할 것"이라며, "청정 석탄 가스화 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중국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베트남에서 "자원개발 +수출" 양날개의 행복비상

SK에너지의 베트남 시장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다. SK에너지에게 베트남은 전 세계 30여 수출 대상국가 중 이른바 빅5 안에 드는 수출국이다.

SK에너지가 베트남의 문을 두드린 것은 지난 1994년 베트남의 15-1광구에 대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서부터 본격적

인 인연이 시작됐다. 베트남의 중요성이 부각된 2000년대 들어서는 2007년 하노이지사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6.8%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부상한 데 이어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기불황 속에서도 5%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해외투자의 매력이 점점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병렬 SK에너지 하노이 지사장은 "끈끈한 유대관계 및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원개발, 석유제품 및 기술수출 등 SK에너지의 베트남 시장을 향한 노력이 하나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선물



SK에너지 구자영 사장과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10월 28일 베트남 중부 빈손 지역에 위치한 빈하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제개발 NGO인 지구촌나눔운동과 연계하여 SK에너지 임직원 자원봉사자 30여명과 베트남 BSP社 자원봉사자 20명, 지구촌나눔운동현지 주민 등이 참여해, 도서관 페인트 칠과 화장실 신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어린이들에게 뜻 깊은 선물을 주게 된 것이다.

SK에너지 구자영 사장은 "SK에너지는 베트남에서 자원개발, 기술인력 및 석유제품 수출 등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베트남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하면서, 적극적인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 ■ G20 Business Summit 참석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은 지난 11월 10일과 11일,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개최된 'G20 Business Summit'의 녹색 성장 분과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호세 사파테로 스페인 국무총리, 펠리페 칼데(Felipe Calderon) 멕시코 대통령 등과 함께 녹색성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녹색 성장 분과 라운드테이블은 에너지 효율, 녹색 일자리, 신재생 에너지를 주제로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라운드 테이블 3'에 참석한 허동수 회장은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온실가스 벤치마크 설정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한국 정부 주도로 설립한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와 오는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하는 KBCSD 주관 '한-멕시코 산업계 간담회'에 대해 소개하며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였다.

### ■ WBCSD 사무총장 초청 간담회 주관



허동수 회장은 지난 10월 11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사무총

장 초청 KBCSD간담회'를 주관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진 국회의원, 마르타 오르티즈 드 로사스 주한 멕시코대사,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바운 스티그슨 WBCSD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2012년 WBCSD 총회 한국 개최'와 'WBCSD Vision 2050'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 ■ 녹색성장 산업협의체 제5차 회의 참석

허동수 회장은 지난 9월 1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녹색성장 산업협의체 제5차 회의'에 참석했다.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 황창규 R&D 전략기획단장 그리고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발전분야 목표관리제 추진계획'과 '녹색성장 대·중소기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그린 크레딧' 제도의 시행을 선언하였다.

### ■ GS칼텍스, 실시간 온라인 채용 설명회 개최



GS칼텍스는 지난 9월 16일 저녁 8시부터 90분 동안 생방송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채용 설명회는 GS칼텍스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채팅 창에 올라오는 입사 희망자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해주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온라인채용설명회는 오프라인 채용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우수한 인재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GS칼텍스에 대한

유용한 소개와 채용과 관련한 설명, 인사담당자와의 직접 소통 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 ■ GS칼텍스, 「고도화 능력」 업계 최고 도약



GS칼텍스가 2007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3번째 고도화 설비인 감압잔사유 수첨탈황분해시설(VRHCR : Vacuum Residue Hydrocracker)을 지난 12월 1일부터 100% 풀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10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지 26개월만에 공장가동률을 100%로 끌어 올리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GS칼텍스는 고도화처리 능력을 기존 일일 15만 5천배럴에서 21만 5천배럴로 늘려 국내 최대 규모로 올라섰으며, 고도화 비율 역시 기존 20.7%에서 28.3%로 끌어올려 국내 업계 중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 ■ 2010년 한국고객만족지수(KCSI) 주유소부문 1위 선정

GS칼텍스가 한국고객만족지수(KCSI) 주유소부문 1위에 선정됐다. KCSI는 우리나라 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종합지수로, GS칼텍스 주유소는 2010년 주유소부문 고객만족도 측정에서 가장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GS칼텍스는 2009년 12월에 발표된 국가고객만족도 NCSI 주유소부문 1위 선정, 2010년 7월 업계 최초로 고객만족자율관리(CCMS)우수기업 인증과 더불어 이번 KCSI 업계 1위로 선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고객만족도 1위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 ■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개관식 참석 및 홍보관 개관

허동수 회장은 지난 11월 9일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과 함께 G20 정상회담을 기념하여 열린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개관식에 참석하였다.

GS칼텍스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중 전기차 운행 관제 및 최첨단 충전소를 구축하는 스마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의 주관업체로 참여 중이다.

허동수 회장은 이날 GS칼텍스 경영진들과 함께 대표 전기차 충전소인 무수천 주유소 준공식에 참석하여 GS칼텍스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운영 센터 방문 및 전기차를 직접 시운전해 보았다. 이어진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방문에서는 KT와 지난 5월부터 함께 준비해온 GS칼텍스의 스마트그리드 홍보 컨텐츠를 직접 시연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 ■ GS&POINT 나눔카드로 착한소비 실천하세요



GS칼텍스는 지난 12월 13일 오후 12시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GS칼텍스 허동수 회장과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고 GS&POINT 나눔카드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GS칼텍스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주유하고 GS&POINT 나눔카드를 제시하면 1리터에 10원씩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적립되며, 조성된 기금은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되어 저소득층 조손가정 아이들의 생계와 주거환경 및 교육문화활동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 S-OIL, DJI 월드 인증 획득



S-OIL은 올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이하 DJSI) 평가에서 정유사로서는 국내 최초로 'DJSI 월드' 부문에 편입, 지난 10월 28일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G20 DJI 국제 컨퍼런스'에서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DJSI는 미국 금융정보회사 다우존스와 스위스 투자평가기관인 샘(SAM)이 1999년 도입, 세계 최고의 권위와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지속가능성 평가지수다.

이날 인증 수여식에서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는 컨퍼런스의 코멘테이터로 참여해 "지속가능경영은 선택이 아닌 생존과 관련된 이슈이며, S-OIL은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을 경영전략으로 수립하고, 수립된 전략을 일상 업무와 통합해 실행하는 한편 그 결과를 모든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아-태석유회의(APPEC) 전야 리셉션

S-OIL은 지난 올해 APPEC(Asia-Pacific Petroleum Conference, 아-태석유회의)에서 글로벌 석유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리셉션을 개최했다. APPEC 전야인 지난 10월 10일 싱가포르 플러튼 호텔에 행사장을 마련한 S-OIL은 석유메이저, 정유사, 트레이더 등 세계 각국의 석유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아-태 석유시장 리더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이 자리에는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를 비롯한 S-OIL 임직원 20여명이 세계 각국의 초청 인사들을 맞이했다. 오후 7시 시작된 리셉션은 800여명의 게스트로 성황을 이룬 가운데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 SEP 현장 무재해 500만 인시 돌파

S-OIL 온산공장 증설 프로젝트(SEP)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향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9일을 기해 건설현장 무재해 500만 인시를 달성했다.

일일 3천800여명이 투입되는 SEP 현장은 프로젝트 전 과정을 통틀어 최다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공사 정점 기간에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속해 무재해 500만 인시 기록을 세웠다. SEP 현장은 11월말, 기준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며 주요 장치 대부분이 설치 완료됐으며, 각 장치에 대한 계장과 배관 및 보온, 수압 테스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온산공장 노사화합 산행대회

S-OIL 노사는 지난 11월 13일 울산시 남구 대공원 일원에서 온산공장 임직원과 가족 2,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화합을 다지는 '2010년 온산공장 노사화합 산행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금년도 열번째 열리는 노사화합행사로서, S-OIL 온산공장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임직원과 가족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대공원산 등반 후 인근 문수구장 호반

광장에서 2부 행사를 통해 노시간 신뢰와 단합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S-OIL 하성기 수석부사장은 "임직원과 가족은 회사의 큰 기둥이자 주인"이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 S-OIL 울산복지재단 온산지역 무공해 쌀 수매

S-OIL 울산복지재단은 지난 12월 8일 울주군 온산읍 상화마을회관에서 S-OIL 신동열 상무, 신장열 울주군수, 한동영 울산시의원, 박영태 온산읍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친환경 우렁이농법 쌀 수매식'을 가졌다.

이번 쌀 수매행사에서 에쓰오일 울산복지재단은 온산지역 48곳 농가에서 생산된 무공해 쌀 약4,500포(약 3억원 상당, 40kg/포)의 추곡을 수매하였으며, 수매한 쌀은 전량 설날, 추석, 그리고 가정의 달 5월에 온산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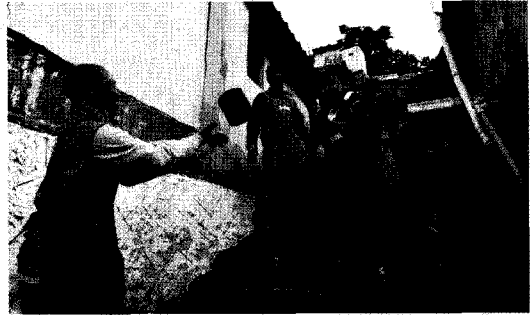
수매식에 참석한 S-OIL 신동열 상무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쌀 소비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S-OIL은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겠다"고 밝혔다.

## ■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누기

S-OIL은 지난 11월 3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3동 '개미마을'에서 'S-OIL 사회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눔' 자원봉사활동 등을 펼쳐 저소득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 채비를 도왔다.

이날 S-OIL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에 연탄 4만장을 기부하고, 임직원 사회봉사단 70여 명과 함께 노후 주택 밀집지역인 홍제3동 '개미마을'을 방문하여 저소득 가정에 연탄 400장씩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수베이 CEO는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지내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연탄을 나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직원들과 힘을 합쳐 온정을 선물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 ■ "올해의 영웅소방관" 시상



S-OIL은 지난 12월 7일 서울 서대문소방서에서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와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소방방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소방영웅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중준 소방장(43세, 중앙119구조대) 등 영웅소방관 8명에게 상패와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S-OIL은 소방방재청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추천을 거쳐 영예의 '최고영웅소방관'에 선정된 최중준 소방장에게 상패와 포상금 2천만 원, 서형근 소방장(서울 동작소방서) 등 '영웅소방관' 7명에게 상패와 포상금 1천만 원을 시상했다.

수베이 CEO는 "S-OIL의 '소방영웅 자킴이' 프로그램이 전국 3만 7천여명의 소방관들에게 더 큰 용기와 희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S-OIL은 정의감과 봉사정신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현대오일뱅크, 연평도 주민·유가족에 위로금 전달



현대오일뱅크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전사한 장병 유가족과 피해 주민에게 임직원들이 주유소 현장근무를 통해 모은 3600만 원을 전달했다.

당초 근무 수당을 주

유원 시급으로 환산해 연말 어려운 이웃에 기부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평도 사건을 접한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은 유가족과 피해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에 뜻을 모았다.

한편, 지난 11월 25일 권오갑 사장을 비롯한 현대오일뱅크 임원 14명은 국군 수도병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교로 근무했던 권 사장은 "부하를 잃은 심정으로 매우 안타깝다"며 유가족에게 사비로 1천 만원을 전달했다.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오일뱅크는 '실버전용 서비스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실버주유원만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주유원들과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중절모와 이름표도 제공한다.

이번 워킹실버사업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를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 사회공헌우수, 서울시장 표창 수여

현대오일뱅크가 '2010 사회공헌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

지난 12월 4일 어린이재단 주최로 잠실 롯데월드 가든스테이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현대오일뱅크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총 8개의 회사가 사회공헌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현대오일뱅크는 특히 임직원 개인 기부 및 봉사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오일뱅크는 모든 부서가 봉사팀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봉사활동과 기부에 대해 회사차원의 지원제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 워킹실버사업, 실버주유원 1,000명 채용



현대오일뱅크가 만 60세 이상 장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워킹실버' 사업을 펼친다. 현대오일뱅크는 실버취업지원단체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까지, 1000여명의 실버주유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12월 20일까지 전국 직영주유소를 위주로 350여명의 실버주유원을 1차 선발하고, 내년 상반기에 650여명을 선발해 자영주유소까지 확대

## 고객과 함께 결식아동 돕기



현대오일뱅크가 결식아동돕기 후원기관인 '굿 네이버스'에 고객과 함께 모은 2000여 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12월 1일 현대오일뱅크는 남대문로 서울사무소에서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굿 네이버스'에 전달식을 가졌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합살프로모션과 동시에 고객들이 포인트를 기부해 결식아동을 돕는 '마음가득 페스티벌'을 진행해 왔다. 한달 동안 2561명의 고객들이 총 10,176,936 포인트를 기부했다. 여기에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고객이 기부한 포인트와 동일한 금액을 현대오일뱅크가 더해, 20,353,872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 ■ 사랑가득 희망도서 캠페인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2월 1일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단체를 방문해 임직원들이 모은 책 1100권을 기증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

난 10월부터 '사랑가득 희망도서 나눔' 캠페인을 통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책을 기부 받았다. 이번 캠페인은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책 읽는 즐거움을 나누고자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대오일뱅크는 기증 도서 1권당 3000원을 지원해서 마련한 330만원을 도서와 함께 전달했다.

이날 현대오일뱅크가 기증한 책은 도서산간 농어촌 지역의 책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고, 기부금은 어린이 도서관 건립 및 유지에 사용될 예정이다.

## ■ 대신본사, 사랑의 쌀 수매식

현대오일뱅크가 대신본사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수매해,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하였다.

지난 11월 24일 대신본사에서 지역주민 대표와 현대오일뱅크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사랑의 쌀 수매



식을 가졌다. 이날 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 및 대산 지역에서 생산된 쌀 8억원 상당을 사들였으며, 수매 쌀은 연말 지역 공동 모금회에 기부하였다. 현대오일뱅크가 기부한 쌀은 충남지역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소외 가정과 태풍 피해민들의 소중한 겨울나기 양식으로 사용된다.

## ■ 현대오일뱅크杯 고양시 동호인 테니스대회



현대오일뱅크가 고양시 테니스 동호인을 대상으로 '현대오일뱅크杯 고양시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21일 고양성사시립테니스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고양시 테니스 동호회원 500여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현대오일뱅크가 주최한 이 행사는 마스터부, 챌린저부, 비즈니스부(여성)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고양시 10개의 테니스 코트에서 동시에 경기가 진행됐다.

현대오일뱅크 수도권본부장 박병덕상무는 "고양시 소재 주유소들과 함께 이번 테니스 대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지역 스포츠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